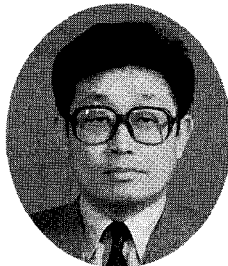


인구와 식량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

동·서양 식생활 차 고려 없는 맬더스 인구론, 불완전한 이론
식량문제, 곡물낭비적인 서구 식생활에도 책임 부여해야 마땅

많은 사람들이 식량문제를 걱정하고 있다. 지난 10월, UN식량농업기구(FAO)는 지구 인구 전체의 8.5%가 기아상태에 있다고 경고했다. 분명히 지구상에는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며 영양실조로 죽어 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기아(飢餓)로 죽어 가는가. 우리들 대부분은 그 원인을 인구는 급속하게 증가하는 데 식량생산은 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들은 <완전하지 못한> 맬더스(Malthus) 이론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또 그에 대한 맹목적(盲目的)인 신앙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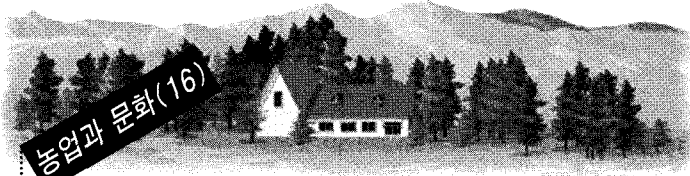


장 제우
전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

‘식량문제 인식’ 서구식각 ≠ 동양식각

우리 모두에게 잘 알려진 맬더스는 18세기 중엽 영국에서 태어난 인구학자 겸 경제학자이다. 그는 식량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그의 저서 <인구론>을 통해 <식량은 산술급수

적으로 증가하는데 비해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식량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맬더스 이론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식량문제는 급격한 인구증가와 부진한 식량생산에 그 원인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인구증가를 억제하고 식량생산을 늘려야 식량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같은 논리에 휩쓸려 세계 모든 나라들도 인구를 억제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바로 산아제한(産兒制限)이다. 우리나라에서도 1960년 이후 가족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산아제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인구 증가를 억제해 왔다. 이와 함께 1970년대 중반부터는 식량생산을 늘리기 위해 다수확 품종개발을 서둘렀다. 그리고 통일벼라는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여 농가들에게 보급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이 식량문제를 식량의 수요와 공급이라는 양면에서 접근하는 바람직한 조치라고 평가한다. 물론 산아제한과 다수확 품종의 개발로 우리나라의 경우 식량문제, 최소한의 쌀 문제는 해결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맬더스의 이론을 자세히 들여 보면 식량문제의 책임을 인구증가율이 높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쪽에 떠넘기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최근 UN에서 발표한 인구통계를 보면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인구는 인구수나 증가율에서 단연 1,2위를 다투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구사람들은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세계 식량문제를 압박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이와같은 맬더스류의 식량문제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정당성을 갖고 있는가. 결론부터 말한다면 맬더스의 인구론은 반쪽짜리 인구론에 지나지 않는다. 식량문제에 대한 맬더스의 인식은 서구의 시각에서이고 동양의 시각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식생활은 동양과 서양이 크게 다르다. 동양은 쌀로 밥을 지어먹는 곡물의 직접섭취 방법이고 서양은 곡물을 가축에게 먹여 고기를 먹는 곡물의 간접섭취 방법이다. 그런데 가축을 통해 곡물을 소비하는 서구의 간접섭취 방법은 낭비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면 식량문제의 책임의 일단이 곡물 낭비적인 식생활을 하는 서구사람에게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곡물의 간접섭취 방법인 서구의 식생활이 낭비적인가.

‘식량 소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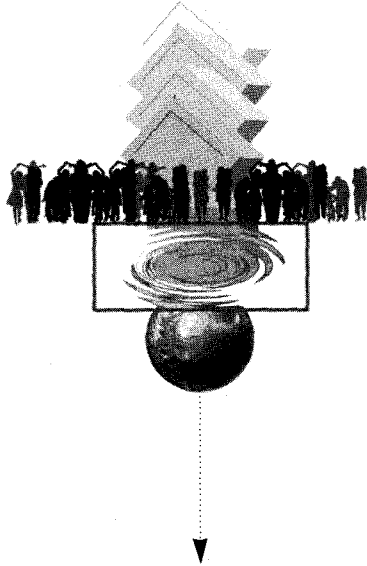
서양어린이 1명 = 동양어린이 10명

잘 아는 바와 같이 서구의 식생활은 고기가 중심이다. 쇠고기든 돼지고기든 하루 식탁에서 고기가 빠지는 날은 거의 없다. 미국의 예를 들어보자. 1년 동안 미국인들은 한 사람이 평균 40킬로그램의 쇠고기와 35킬로그램의 돼지고기를 먹는다. 그밖에도 상당량의 닭고기를 먹는다. 쇠고기와 돼지고기만 계산해 보아도 미국사람들은 80킬로그램에 가까운 고기를 먹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쇠고기 8킬로그램과 돼지고기 15킬로그램을 먹는다. 이를 합해 보아도 20킬로그램 남짓이다. 이렇게 보면 미국인들의 고기섭취량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3배를 넘는다. 그런데 고기를 먹는 것은 곡물을 먹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가축을 순수하게 방목(放牧)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모든 나라들이 축사(畜舍)를 만들어 농민들이 생산한 곡물

과 목초로 가축을 키운다. 가축을 키우는 데 가장 많이 쓰이는 곡물은 옥수수이다. 그 밖에도 호밀과 보리, 귀리 등이 가축의 사료로 쓰인다. 그런데 가축의 사료인 배합사료에 사용하는 곡물 가운데 거의 절반이 옥수수라고 한다. 그래서 고기를 먹는 것은 곧 옥수수와 같은 곡물을 소비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러면 열량을 얻기 위해 고기를 먹는 것과 곡물을 직접 먹는 것과는 어느 방식이 더 절약적이고 경제적인가.

이를 입증하기 위해 먼저 가축영양학에서 사용하는 개념 하나를 소개하기로 한다. <사료의 생산물로의 전화율>

이라는 개념이다. 여기서 전화율(轉化率)은 곡물을 직접 섭취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열량과 같은 곡물을 가축에게 먹여 고기로 섭취했을 때의 열량을 비교하는 개념이다. 다시말하면 일정량의 곡물을 직접 먹었을 때 얻는 칼로리를 100으로 할 경우, 같은 양의 곡물을 가축에게 먹여 고기로 칼로리를 얻는다면 과연 얼마만큼의 열량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개념인 것이다. 러셀(Russel)이라는 사람이 계측한 자료를 보면 쇠고기의 경우가 6.8%이고, 닭고기 9.7%, 돼지고기 18.5%, 우유 19.4%이다. 이 자료에 약간의 설명을 덧붙이면 일정한 양의 곡물이 있는 데 이 곡물을 밥과 같은 음식으로 직접 섭취했을 때 100이라는 열



지구의 식량문제는 인구증가나 곡물생산의 저위성에도 원인이 있지만 곡물 낭비적인 서구의 식생활에도 그 책임이 있다.

량을 얻는다고 가정하면 같은 양의 곡물을 소에게 먹여 쇠고기로 섭취하게 되면 그 때 얻는 열량은 6.8칼로리라고 하는 의미이다. 그래서 쇠고기를 많이 먹는 서구의 곡물 간접섭취 방식은 동양사람과 같이 곡물로 밥을 지어먹는 직접섭취방식에 비해 곡물의 낭비가 10배 이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서구와 같이 육식을 하는 국가들은 곡물을 낭비하는 식생활을 하는 것이고 동양과 같이 쌀과 같은 곡물로 밥을 지어먹는 국가들은 곡물을 상대적으로 절약하는 나라들인 것이다. 그래서 이

론적이기는 하지만 곡물낭비의 관점에서 보면 서구사회의 어린이 1명이 태어나는 것은 동양의 어린이 10명이 태어나는 것과 같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맬더스가 식량문제의 원인을 인구증가에 두고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을 그 원흉으로 지목하였다면 나는 거꾸로 곡물낭비의 관점에서 서구사회의 낭비적인 식생활을 식량문제의 원흉으로 지적하고 싶다. 분명히 말하지만 지구의 식량문제는 인구증가나 곡물생산의 저위성에도 원인이 있지만 곡물 낭비적인 서구의 식생활에도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지구인구의 빈곤·영양실조와 관련하여 지금 쫓겨난 맬더스 이론을 다시 한번 곰곰히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한다. **농약정보**